

대구주보

연중 제15주일

2014. 7. 13. (가해) 제1898호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_053)250-3048~9_http://www.daegujobo.or.kr



이태리 글라라성당 옆 올리브 나무
사진 _ 홍창익 비오 신부

† 오늘의 전례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마태 13,1-23 참조)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 뿌리시는 씨는 당신의 말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오시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불린 것은 우리의 공덕이 아니라 은총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제1독서)하신 하느님께서서는 몸소 시작하신 구원 사업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제1독서 이사 55,10-11

제2독서 로마 8,18-23

복음 마태 13,1-23

입당송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흠족하리이다.

화답송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영성체송 주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한재상 세례자요한 신부 | 큰고개본당 주임

고집(固執)

고부(姑婦)갈등,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크든 작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문제는 어느 사람이나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시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겼다(?)는 생각과 자신이 살아온 경험상 이러저러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있고, 며느리는 현 시대의 경제·문화에 맞게 살아야 하며 지나간 세대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서로간의 의견 충돌로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가진 생각이 맞는데 왜 듣지 않는가?’하는데서 부터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고부간의 갈등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나 분쟁이 생기는 것도 “내 생각이 옳바르니까 내 말에 따라와 달라.”는 주장 때문에 생깁니다. 학교나 직장, 사업장등 모든 일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가 가진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긴 세월 동안 한 사람은 그 사람 대로, 짧게 한 사람은 그 나름대로 하느님을 찾습니다. 찾는 과정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하면 “너나 그렇게 하고 나는 나대로 하련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

기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느님 뜻에 맞는 모습으로 인도하기 전에 꼭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마태13,9) 또는 “알아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마르4,23) 이와 같은 모양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 방법이 여러 가지 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들 중에, 내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들으려 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려 하는 자세가 “이런 것이다.”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각자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 좋은 땅에서도 맺히는 열매가 달리 열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필문**

대구지역 순교자 20위의 삶을 묵상하며 ⑪

젓먹이 때부터 익힌 신앙

김화춘 야고보(?-1816)의 순교이야기

일찍이 요즘만큼 조기교육에 관한 열풍이 분 적이 있었을까? 태교에서부터 아기의 건강과 공부를 챙기는 부모들의 관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모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각종 예방접종과 책들을 읽어주지만 정작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도 소홀한 것 같다. 젓먹이 때 유아세례를 받고 난 후 부모의 기도소리와 성가소리와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자라난 자녀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봤는가? 조정에 보고된 순교자 김화춘 야고보의 기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김야고보는 입에서 젖내 날 때부터 부자간에 악행을 익혔습니다.” “김야고보는 아버지로부터 천주교 신앙을 배워 대대로 죄악을 저질러왔다. 모두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로 천주교 교리를 귀로 전해 듣고 입으로 외우면서 그 사악한 말을 깊이 믿었다.”

충청도 청양에서 태어난 김화춘 야고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형 김대권 베드로와 함께 아버지에게 교리를 배웠다. 김야고보는 1816년 대구 형장에서 순교하였고, 형은 1839년 전주에서 순교하여 지금 천국에서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으리라. 야고보는 이 세상에 태어나 하느님을 섬기고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큰 힘을 보여줄 줄 알았다.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지켰으며, 언제나 기도 생활과 영적독서에 부지런하여 교우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그러다 좀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경상도 청송으로 이주하여 살았다. 을해박해가 일어나자 경주 포졸들이 청송 일대의 신자들을 수색하고 다닐 때, 야고보도 그들과 함께 체포되어 경주관아로 끌려갔다. 이곳에서 관장이 제시한 온갖 유혹을 거절하며 혹독한 형벌을 신앙으로 극복하였다. 다시 대구로 이송되어 여러 달을 지내는 동안 감사에게 매서운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굳게 지켰다. 1816년 12월 그는 동료들과 함께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며 20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순교자 김화춘 야고보님! 당신께서는 아기 때부터 부모에게 신앙을 배웠듯이 우리의 아이들도 일찍부터 주님을 알도록 전구해 주소서. **기도문**



김화춘 야고보
(?-1816)

글 대구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그림 김효애
(크리스티나)

1893호(성령 강림 대축일) 4면에 실린 순교자 최봉한(프란치스코)의 영정이 좌우 반전되어 실렸으므로 정정합니다.

1894호(삼위일체 대축일) 4면에 순교자 서석봉(안드레아)의 영정이 순교자 김시우(알렉시오)의 영정과 바뀌어 실렸으므로 정정합니다.

대구지역 순교자 20위의 삶을 묵상하며 ②

애주애인(愛主愛人)

박경화 바오로(1757 - 1827)의 순교이야기

박경화 바오로
(1757 - 1827)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기는 쉬운데 늘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기는 왜 그리 어려운지... 그런 때마다 주님께서는 일깨워 주신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만큼만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전히 자신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임을... 순교자 박경화 바오로는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

충청도 홍주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박경화 바오로는 33세 무렵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본래 그는 제법 재산도 있는데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다. 그는 입교한 얼마 후 일어난 박해로 체포되었으나 마음이 약해져 석방되어 나왔다. 하지만 배교로 인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고향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살았다. 이후 주문모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자 그를 찾아가 세례를 받았다. 그런 후 교회 서적을 열심히 읽고 비신자들을 입교시키고 교우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며 자녀들이 덕행을 잘 닦을 수 있도록 모범을 보였다. 비록 그의 살림은 가난하였지만 그를 찾아오는 교우들에게 항상 정성껏 대접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1827년 정해박해 소식을 듣게 되자 그는 교우들을 안심시킨 뒤, 경상도 상주 명에목으로 이주하여 그해 음력 4월 그믐에 교우들과 함께 주님 승천 대축일을 지내다가 체포되었다. 상주관아에서 그는 교우들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더 많은 형벌을 받았으나 그의 신앙은 조금도 꺾이지 않고 관장에게 이렇게 소리쳤다. “내 육신은 관장에게 맡기지만, 영혼은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다시 대구 감영으로 이송된 그는 노령에다 여러 차례의 형벌로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어 옥사하게 되었다. 당시 감옥에서 아들 박사의 안드레아 함께 고문을 겪으며 부자간에 보여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다. 한번은 관장의 명령에 따라 그가 한 승려와 교리 토론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의 설명에 막힘이 없는 것을 본 포졸들은 “천주교는 참된 종교”라며 감탄해 마지않았다. 훗날 다블뤼 주교는 “뛰어난 친절, 변함 없는 온화, 지극히 관대하게 베풀었던 덕행, 교우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던 열성, 그리고 항상 눈길을 끄는 모범을 보여주었던 그의 모든 덕성들은 그를 진정한 가장(家長)”으로서, “참으로 세속을 버린 사람”으로 기록하였다.

순교자 박경화 바오로님! 저희도 세상 것을 버리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으로 살 수 있는 은총을 빌어주소서. **필리핀**

글 대구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그림 김효애
(크리스티나)



외줄타기 곡예사

외줄타기의 달인이라 불리는 곡예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엄청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나이가가라 폭포 위에서 외줄타기를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제의를 받아들여 폭포의 한 쪽 끝에서 외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사람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곡예사는 “여러분 제가 다시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모두 그렇다고 말하며 환호했습니다. 곡예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건너갈 때 제 어깨에 타실 분 계십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듯 조용해 졌습니다. “아깐 저를 믿는다고 하셨잖습니까?” 그 때 한 아이가 손을 들어 앞으로 나오며 어깨에 타겠다고 했습니다. 곡예사는 아이에게 빙그레 웃으면서 목마를 태웠습니다. 다시 반대편으로 가는 길, 줄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가슴을 졸이며 두 사람을 지켜 봤습니다. 곡예사는 무사히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외줄타기는 대성공이었고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꼬마야 무섭지 않았니?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러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뇨. 무섭지 않았어요. 전 아빠가 안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믿는 마음은 기적입니다. 믿음의 힘은 온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둘이 되지 말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금주의 성인

7월 13일	성녀 밀드레다(공주, 수녀원장, 미느터, 700년경), 성 세라피온(순교자, 195년) 성 실라(사도들의 제자, 증거자, 1세기경), 성 에우제니오(주교, 증거자, 카르타고, 505년) 성 헨리코 2세(황제, 973~1024년)
7월 14일	성 가밀로(신부, 설립자, 1550~1614년), 성 니고데모(수사, 아토스산, 1748~1809년) 성 테우스데디트(주교, 캔터베리, 664년), 성 마르첼리노(선교사, 762년경) 성 올릭(수도원장, 클뤼니, 1020~1093년), 성 프로코피오(수도원장, 사자바, 980~1053년)
7월 15일	성 다윗(주교, 스웨덴, 1080년), 성 도날드(수사, 오길비, 8세기) 복녀 안젤리나(과부, 마르시아노, 1377~1435년), 성 폼필리오(신부, 증거자, 1710~1756년) 성 보나벤투라(추기경, 신학자, 교회학자, 1217~1274년)
7월 16일	성녀 라이델다(동정순교자, 680년경), 복자 밀로(주교, 테루안, 1158년) 성 시세난도(순교자, 코르도바, 851년), 성 폴라도(수도원장, 생드니, 784년) 성 에우스타키오(주교, 증거자, 안티오키아, 340년경)
7월 17일	성 레오 4세(교황, 855년), 성녀 마르첼리나(동정녀, 398년경) 성 알렉시오(증거자, 로마, 417년), 성녀 헤드비지스(여왕, 폴란드, 1374~1399년) 성 클레멘스(선교사, 주교, 오크리다, 916년경), 성 엔노디오(주교, 파비아, 521년)
7월 18일	성녀 마리나(동정순교자, 오렌세), 성 프레데리코(주교, 순교자, 위트레흐트, 838년) 성 아르놀포(주교, 은수자, 메스, 582~641년), 성녀 심포로사(순교자, 135년경)
7월 19일	성녀 루피나(동정순교자, 287년경), 복녀 스틸라(동정녀, 아벤베르그, 1140년경) 성 아르세니오(부제, 은수자, 354~450년), 성 암브로시오(설교자, 778년) 성녀 유스타(동정순교자, 287년경), 성녀 마크리나(동정녀, 330~379년)

■ 교구 사제 연중피정



2014년 상반기 대구대교구 사제 연중피정이 6월 9일(월)부터 7월 4일(금)까지 한티 피정의 집에서 총 4차로 나눠서 진행되었다.

■ ‘코이노니아(Koinonia:친교) – 우리 모두 선물이 된다’ 뮤직비디오 공개



천주교 교황방한준비위원회(위원장 강우일 주교) 문화행사분과가 준비한 홍보영상 ‘코이노니아(Koinonia:친교) – 우리 모두 선물이 된다’ 영상이 7월 7일(월) 공개됐다. 영상에는 배우 안성기(사도요한)·김희애(마리아)·김태희(베르다)·김하늘(세실리아)·김우빈(베네딕토), 가수 바다(비비안나), 방송인 최유라(안나)·이동우(마르코), 발레리나 김주원(힐데가르트), 쇼트트랙선수 박승희(리디아), 소프라노 임선애씨 등 20명의 천주교 신자 합창단, 오케스트라 등 40여 명이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음원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헌신하는 교황님의 뜻처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액 기부된다.

** 영상보기 : <http://www.youtube.com/watch?v=qM48Y5REXL0>

기사 및 사진 제공: 교황 방한 준비위원회

30, 60, 90배를 위하여

박성규 엘리시오



미사안내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14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7월 17일(목) 10:00 평화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14일(월) 11:00 월성성당	노동자들을 위한 미사	7월 18일(금) 19:30 가톨릭근로자회관 2층 소강당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7월 14일(월) 11:00 황성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7월 19일(토) 10:00 월성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14일(월) 11:00 신평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7월 19일(토) 11:00 성모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7월 14일(월) 11:00 죽도성당	평화미사	7월 19일(토) 15:00 프란치스코눔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14일(월) 11:30 범어성당	한중(韓中) 천주교 친선협회 월례미사	7월 19일(토) 18:00 계산문화관
성요셉 아버지학교 월례미사	7월 14일(월) 20:00 교구청 별관 1층 대회의실		

성소 | 피정

제2차 천주섭리 SDP 캠프

기간: 8.8(금) 14:00~10(일) 13:00
장소: 수원 본원 수녀원
대상: 중·고 여학생
마감: 7.26(토)까지, 선착순 50명
문의: 천주섭리수녀회, (010)3940-3635

마리아 영성 피정(성체현시, 미사, 안수)

일시: 7.16(수) 13:00~16:00
8.20(수) 13:00~16:00
지도: 강요셉 신부
문의: 삼덕성당, 422~6691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7.18(금) 23:00~20(일) 15:00
출발: 시민회관 16:00(성심교육관)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문의: 이명자 카타리나,
(010)4515-1114

2014 살레시오 여름 성소 피정

기간: 7.25(금)~27(일)
장소: 살레시오 서울 대림동 수도원
대상: 고3, 20대 미혼 남성
참가비: 4만 원
문의: (010)3894-1332

숨은꽃(한국외방선교수녀회 피정)

기간: 7.26(토)~27(일), 부산명상의 집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19-1690 / 회비: 3만 원

제26차 신구약 성경 통독 피정

기간: 7.26(토)~8.3(일)
장소: 오순절평화의수녀회 루하피정센터
문의: (055)351-2286 / (011)758-3572

2차 젊은이 베네딕도 살이 피정

기간: 7.30(수)~8.3(일) 4박 5일
장소: 톡정포교베네딕도회 대구수녀원
문의: (010)8519-3431 / (010)9347-3431

베네딕도 영성관 신약성경 통독 피정

전반부: 7.31(목) 9:45~8.3(일) 17:00

후반부: 8.18(월) 9:45~21(목) 17:00
동반: 김수조(아가다) 수녀
문의: 313-3425 / 회비: 각 14만 원

남성 제249차 꾸르실로 일정 변경

변경 전: 8.14(목)~17(일)
변경 후: 8.21(목)~24(일)
문의: 254-4671

교육 | 모집

오순절평화의마를 철야기도회

시간: 매주 화 23:00~익일 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몰 앞 20:30
수성구청 21:00
문의: 김명옥, (010)5529-3186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학교 입학생 모집

모집기간: 6~8월(9월 개강)
대상: 성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
네이버: 가톨릭 사이버 성경학교
문의: 성경사목수녀,
(010)7249-7966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 /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이명 / 어지럼증 / 두통
- 오십견 / 어깨통증 · 무릎 관절통

통증의학전문/원장 이준석(이냐시오)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011-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중문(파비올라)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무릎을
치료하는 14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흠(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송현역 2번 출구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유방·갑상선 전문 **여의사**

Maria Breast Clinic

마리아유외과

대표원장 김 정 경(안젤라)

반월당역 22번 출구 농협 3층
(주차 가능함니다)

예약전화 053)252-6875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목조전원주택 분양/시공

21C 주택산업
이정수 마티아
경산조폐공사정문 앞

(053)817-0322 | 010-2624-0322

행사 | 모임

15학년도 베드로관(소신학교) 지원자 모집

고등학교 전(全)과정을 담당사제와 함께 기숙사에서 공동체생활, 학업은 무학고등학교(경북 하양 소재) 재학 대상: 사제성소를 희망하는 중3 남학생 문의: 854-2085

keyofpeter@naver.com

7월 가나 강좌

일시: 7.20(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접수(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가나 피정(1박 2일) 신청 가능
일자: 9.13(토)~14(일)

교육 | 모집

제11회 청소년문학캠프-여름엠마우스

기간: 7.25(금)~27(일)
장소: 대구가톨릭대 기숙사 및 강의실
내용: 문학강의, 백일장, 시낭송 등
회비: 3만 원, 7.22(화)까지 / 종교무관
주관: 교구 청소년국 / 대구가톨릭문인회
신청: 이왕조, (010)8210-7598(문자접수)

제6회 젊은이 음악 캠프

기간: 8.23(토)~24(일), 청통수련원
주관: 교구 청년국, 회비: 6만 원

대상: 13~35세 이하의 봉사자
인원: 80명(선착순 접수에 한함)
접수: 다음카페(DCCM) 참조

시편성가, 발성법 연수

일시: 7.13(일) 15:00
지도: 김정선 수녀, 박재연
회비: 1만 원 / 문의: 255-4847

대구성령봉사회 철야기도회 변경 안내

기간: 7월 (매주 금) 22:30~(토) 16:00
장소: 고령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차량운행1) 시민회관 21:10
차량운행2) 반고개 명성약국 21:20
차량운행3) 용산 홈플러스 21:30

바오로 몬테소리 20주년 기념 학술제

일시: 7.26(토) 9:00~15: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대강당
신청: 7.12(토)까지 선착순 마감
<http://pmi.daegu.kr>

대안교육 산자연학교(학력인정) 여름캠프

일시: 8.4(월)~7(목) 3박 4일
대상: 초5~6학년, 중1~2학년
접수: 7.14(월)부터 선착순 마감
문의: (054)338-0530(교무실)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기간: 8.8(금)~10(일)
내용: 현시, 조배, 강의, 참회, 면담성사, 안수

강사신부: 하성호, 송재준, 베네딕도수사, 변재홍, 정기모, 스승예수제자수녀
문의: 지속적인성체조배회, (010)5493-1819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일시: 10.10(금)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 14일
11.4(화) 이스라엘 순례 9일 / 11일
주제: 걸어서 하느님을 만나는 곳
문의: 428-5004, www.cttour.org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부탁드립니다

채용 | 안내

옥수성당 여사무원 채용

서류: 자기소개서, 이력서, 교적사본
자격: 워드가능자 / 마감: 7.20(일)

고령 성요셉재활원 주방조리원 채용

자격 조건: 만 55세 이하
문의: (054)954-4176(총무 팀장)

사회복지회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각 본당에 설치된 생명사랑나눔 운동본부 파란색 헌옷 수거함에 사랑을 전해주세요. 헌옷 가전 기타, 해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장애 학생 지원 등 사용 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문의: 555-4846 / 253-9991

교구법원 공시(253-9550)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신종익(다니엘), 김대진

큰 사랑, 큰 믿음!
대구안과 **이전 확장**
DAEGU EYE CLINIC
백내장, 노안, 근시교정 수술
원장 이호성(아오스딩), 조영수(다미아노)
대구시 남구 월배로 468(대명동)
(구)달성군청자리
☎ (053)651-2233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길!
수성성당 연도실
교우 상 당하면 곧바로 연락주세요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 · 010-8345-9479
이주석 (요셉)

일본 성지순례
이라도, 나가사키 - 09월 24일
- 12월 03일, 17일
오이타, 유우인 - 10월 22일, 29일
- 11월 12일, 26일
T. 053)253-3399
www.sungjitour.com
(주)성지여행 포털레(유스티노)

이시우 신경
<http://척추외과> **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팍앤신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팍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snose.com>

매월 불인액이 없는
가톨릭 후불제상조
가톨릭 교우분들을 위한
장례서비스
24시간 상담전화 1577-3182
장례대행/장지분양/묘지이장/묘지조성
장례부장 서경철(라파엘) 010-7799-7836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